

보도시점 2026. 5. 29.(금) 11:00
5. 30.(토) 조간

배포 2026. 5. 29.(금) 09:00

농촌창업 경진대회(로컬푸드 농촌창업 분야) 178팀 접수, 전국 관심 집중

- 경쟁률 25:1, 농촌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 사례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6일까지 공모·접수한 농촌창업 경진대회(로컬푸드 농촌창업 분야)에 총 178팀이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접수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농식품 등 제품을 개발한 유형이 146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체험·관광 유형 12팀, 요식업 유형 7팀, 기타 유형 13건 순으로 접수되었다.

연령대는 40대 이하 신청자가 전체의 8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농촌 소재 업체가 60.2%로 다수를 차지했고 농촌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도 39.8%에 달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로컬푸드 농촌창업이 새로운 가능성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접수된 사례에 대해 6월 5일 서면 심사를 시작으로 현장·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팀(최대 7팀 이내)을 선정하고 후속 지원에 착수한다.

선정된 팀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며, 현대백화점그룹, 월드비전과 연계한 선도기업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 및 콘텐츠 기획·개발, 브랜딩 등 맞춤형 보육 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이후 월드비전과 협력해 현대백화점 내 팝업스토어 운영 등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정부와 연계해 최대 1억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27년~)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의 ‘청년식품창업센터’ 내 시제품 제작실의 장비를 1년간 무상 이용하고, 현장 전문가의 자문 및 멘토링을 통해 제품 개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온·오프라인 ‘푸드 폴리스 마켓(Food Polis Market)’의 입점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농촌창업 경진대회(로컬푸드 농촌창업 분야)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우수창업 모델을 발굴하여,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며 “농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이 농촌경제 활성화와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책임자	과 장	정문기 (044-201-1581)
		담당자	사무관	정세환 (044-201-1584)

